https://doi.org/10.5392/JKCA.2019.19.09.092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재난안전 교육내용 비교 분석 :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Contents of National Curriculum in Korea : Focusing o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and the 2015 Revised Curriculum

성미영*, 김신혜**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학과**

Mi-Young Sung(minie72@dongduk.ac.kr)*, Shin-Hye Kim(zlzltlsgp94@naver.com)**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나타난 재난안전 교육내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유치원)과 2015 개정 교육과정(초·중·고)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 대상 재난안전 교육내용은 신체운동·건강영역의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에 '재난'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생 대상 안전교육내용은 초등1~2학년과 3~6학년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1~2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전한 생활' 대분류 영역 중 하나인 '재난안전'영역에 재난안전 교육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된 반면, 초등3~6학년은 체육, 과학, 실과 등의 관련 교과목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교육내용이 분산되어 있었다. 셋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안전교육내용 역시 사회, 체육, 과학, 기술·가정 등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분산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나타난 재난안전 교육내용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연속성과 체계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시 재난안전 교육내용의 연속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재난안전 | 교육과정 | 2019 개정 누리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and the 2015 Revised Curriculum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contents in the national level curriculu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preschoolers in the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was clarified as 'Knowing how to react in case of accident, fire, disaster, abuse, kidnap etc.' in 'Living safety' category of physical exercise and health sections. Secon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disaster safety education content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found to have the difference between school year in sam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For first and second graders, 'Disaster safety' was cleary presented in one of major categories of 'Living safety', which was newly created at the creative activity in the Revised 2015 Curriculum. On the other hand, for third to sixth graders, safety education is dispersed in the related subjects such as physical education, science, practical courses or in the creativity activity. Third, the safety contents in the Revised 2015 Curriculum for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were also found to be dispersed in social studies, physical education, science, technology-home economics and creativity activ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ontents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in the national curriculum did not have continuity and systemicity from kindergarten to high school. Theref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ensure continuity and systemicity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contents when the national curriculum is revised in the future.

■ keyword : | Disaster Safety | Curriculum | 2019 Revised Nuri Curriculum | 2015 Revised Curriculum |

접수일자 : 2019년 01월 10일
수정일자 : 2019년 03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3월 08일
교신저자 : 김신혜, e-mail : zlzltlsgp94@naver.com

I. 서 론

안전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생존에 위협 없이 복지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위태로움을 느끼지 않는 편안한 상태'인데, 이 개념에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지식, 태도, 행동을 변화시켜 예방하거나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위험요인을 감소시킨 물리적 상태와 그 상태를 유지시켜 행복한 생활을 지속하려는 심리적 안전 상태가 포함된다[1]. 이러한 안전한 상태 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은 교육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안전과 관련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 가해지는 위험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며[2], 위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교육을 의미한다[3].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시기는 발달 특성상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항상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반면, 학습동기가 높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생활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이다[3-5].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 사고발생 통계에 따르면[6-8],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고발생 및 공제급여 보상은 2015년 119,311건(309억 2천 2백만 원), 2016년 115,269건(300억 2천 6백만 원), 2017년 116,684건(327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나서 매년 11만 건 이상의 안전사고와 300억 원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보상을 신청한 건에 대한 통계자료로, 실제로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안전사고를 모두 포함할 경우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학교교육을 통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의 제고와 안전의식, 위기사항 대처능력의 함양이 필요하며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9].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은 규모가 각각 5.8, 5.4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1, 2위의 규모였다[10]. 특히 포항 지진으로 인해 유치원을 포함한 포항 전체 학교 40%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2만 7천 여 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은 5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11][12]. 이처럼 우리나라도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여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재난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교육부에서는 2014년 11월 11일 교육 분야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13],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5년 2월 26일에 학교안전사고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확정·발표하였다[14].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유·초·중·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험 중심의 내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의 7대 영역과 25개의 중분류, 52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15년 9월 23일 발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이 내면화되도록 하였고, 이를 위해 체육, 기술·가정(실과), 과학, 보건 등과 같은 관련된 교과에 안전단원을 신설하여 이론과 실천, 체험을 체계적인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총 64시간으로 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는데, 별도의 교과를 신설하는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하였다[15].

이와 함께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개별 추진되던 재난대응과 국민 안전을 총괄 책임지겠다는 다짐과 함께 신설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는 제8차 국무회의에서 '2016년 범정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는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갖추어야 할 개인의 안전역량을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교육 요구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하고,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의 6대 분야와 23개의 중분류, 68개의 소분류를 구성하였다[16][17].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의 별표6)」에 제시된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기준이 2018년 3월 6일 개정되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의 5대 영역과 실시 주기,

학교 급별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명시하였다[18]. 이처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의 기준 및 내용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중앙부처나 관련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까지 진행된 안전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유아, 초등, 중등, 고등의 각 학교 급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경우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분석한 연구[19]와 국가수준 유아 교육과정을 비교한 연구[20]가 실시되었고, 초등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실과 교육과정 분석 연구[2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 분석 연구[9][22][23] 위주로 이루어졌다. 중고등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가정과 교육과정[24],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을 함께 살펴본 연구 역시 가정과 교육과정의 안전교육을 살펴본 연구[1]였다. 가정과 이외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일부 있었으나, 교과 내 안전교육의 분석기준을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만 한정지어 살펴보았다[25]. 이처럼 안전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우리나라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안전교육 관련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 급별 안전교육에 대한 서로 다른 체계와 내용은 이를 실행해야 할 학교현장에 오히려 큰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안전교육 중에서도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재난안전교육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중앙부처의 관련 정책 및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학교 급별 재난안전 교육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1.1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

: 2019 개정 누리과정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대상은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20년 3월부터 적용 예정이며, 개정 이전 누리과정인 2015 누리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82호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일원화하여 2013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공통과정을 의미한다[26]. 이는 만 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 누리과정의 신체운동·건강영역에는 '안전한 생활을 기른다'를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알고 비상시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제시하였다. 2015 누리과정은 2013년 제정 이후 우리나라 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공통과정으로 기능하고 있었으나, 현장에 적용되면서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보완의 필요성 및 과다한 연령별 교육내용과 현장 적용의 획일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17년 5월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학생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교육부는 2017년 12월 27일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놀이·유아중심의 교육과정 혁신'을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2019년 누리과정 개정 고시와 함께 연구학교를 운영하여 2020년부터 개정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크게 전체 구성 체계, 총론 구성 체계, 영역별 목표 및 내용 구성체계로 구분되어 있고,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3~5세 연령별 구성 체계를 연령 간 공통내용으로 구성하는 것, 둘째,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바로 이어서 함께 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것, 셋째, 영역별 내용범주는 각 3개, 각 영역당 내용은 신체운동·건강(12개), 의사소통(12개), 사회관계(12개), 예술표현(10

개), 자연탐구(13개)로 조정하는 것이다[27] [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1.2 국가수준 초중등 교육과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흐름에 맞추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요구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실태 및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관련된 문제의식에 따라 개정하였다.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은 개정 시점에서 강조되는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방안 모색도 중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2009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 유지, 누리과정 연계 및 한글교육 강화, 1, 2학년 수업시수 순증,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른 안전교육의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지침 개선,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이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 유지, 자유학기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공통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의 신설,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한 선택과목의 다양화, 국어·수학·영어 교과의 비중 적정화,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의 연계 강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국가수준 초·중·고 교육과정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Ⅲ. 재난안전 교육내용 비교 분석

1. 정부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정책과 관련법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재난안전 교육내용을 분석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 관련법에 제시된 재난안전 교육내용을 교육부의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행정안전부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1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의 7대 영역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신변안전, 약물·인터넷 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로 25개 중분류와 52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재난안전' 영역 중 화재, 사회재난, 자연재난의 3가지 중분류에 재난안전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화재'에는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시 안전수칙, 소화기 사용 및 대처방법에 대해 다루고, '사회재난'에는 폭발 및 붕괴의 원인과 대처방법, 각종 테러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재난'에는 풍수 및 태풍 발생 시 대처요령, 지진·대설·한파·낙뢰 발생 시 대처요령이 포함되어 있다.

1.2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행정안전부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서는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갖추어야 할 개인의 안전역량을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요구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영유아기(0~5세)는 안전습관을 습득하는 시기인 안전교육 의존기로 구분되고, 아동기(6~12세)는 안전습관을 선택하는 시기인 안전교육 준비기, 청소년기(13~18세)는 안전습관을 증진시켜나가는 안전교육 성숙기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6개 대분류, 23개 중분류, 68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재난안전교육은 생활안전과 자연재난안전의 2가지 대분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먼저 '생활안전'은 시설안전, 화재안전, 전기·가스 안전, 작업안전, 여가활동안전의 중분류로 구분되고, 화재안전에서 화재예방, 화재대피, 화재진압을 소분류의 하위항목으로 상세하게 다룬다. '자연재난안전'에서는 재난대응, 기후성재난, 지질성재난의 중분류로 구분하여 재난대응은 재난정보, 재난대피, 재난 시 구호활동의 하위항목으로, 기후성재난은 홍수, 낙뢰, 태풍, 폭염, 황사, 가뭄, 대설·한파의 하위항목으로, 지질성재

난은 지진, 쓰나미, 산사태의 소분류 하위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1.3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별표6에서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기준을 5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재난대비 안전교육' 영역에서 재난안전 관련내용을 다룬다. 「아동복지법」에서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실시주기는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초등학교 취학 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화재, 자연재난, 인적 재난 관련내용을 학교 급별 수준에 맞추어 제시하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취학 전의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화재 시 대처법,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화재 시 대처법, 화재 신고 요령, 화상 대처법, 소화기 사용법,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화재 시 대처법, 소방기구 사용법, 자연재난, 인적 재난 발생 시 행동방법, 재난안내시스템 활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재난대비 안전교육의 교육방법으로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시청각 교육, 실습교육, 현장학습, 사례분석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2.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2.1 2019 개정 누리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15 누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기존 2015 누리과정의 기본 구성방향과 구성체계를 가능한 유지하였다. 5개 영역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유아의 연령별로 내용을 구성한 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내용범주를 영역별 3개로 조정함과 동시에 연령별로 제시한 세부내용의 핵심요소를 내용과 통합 조정하여 59개 내용으로 간략화 시킨 점이 개정의 핵심내용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재난안전 교육내용은 신체운동·건강영역의 하위 내용에 명시되어 있다. 신체운동·건강영역의 내용범주는 신체활동 즐기기,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3가지이며,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 중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는 내용에 '재난'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2015 누리과정에서는 '비상시 적절히 대처하기'의 내용 아래 하위내용에 재난안전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보다 상위 차원에 재난안전 관련내용이 명시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2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의 내면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육, 기술·가정(실과), 과학, 보건 등과 같은 관련 교과목에 안전단원을 새로 만들어 이론과 실천 및 체험을 체계적으로 다루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전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총 64시간 늘

표 1. 정부 부처의 재난안전 관련정책과 관련법

구분	주관 부처	영역	내용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육부	7개 영역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 및 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행정안전부	6개 영역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 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5개 영역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려 안전교육을 강화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업시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적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별도의 교과를 신설하는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체험중심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3~6학년의 경우에는 체육, 실과 등의 관련 교과에 안전 대단원을 신설하고, 모든 교과 활동 과정에서 관련되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화재 대피 훈련과 같이 필요한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험중심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초·중·고 학생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 교육과정상의 안전교육은 매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강조되었고, 최근 들어 대형 안전사고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면서 체험중심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교과를 신설하기보다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이 내면화되도록 한다는 개정의 방향성이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실제 교육과정 반영에서는 학교 급별뿐만 아니라 동일한 학교 급 내에서도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먼저, 초등학생 대상 안전교육은 동일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저학년과 고학년 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에 신설된 '안전한 생활'은 2016년 2월 일선학교에 보급된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생활에서의 위험요소를 알고 위험을 예방하며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 체계 및 교수·학습 지침 등이 포함되었다. '안전한 생활'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함양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역량과 더불어 위험 식별하기, 예방하기,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험 상황 알리기 등의 기능을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안전한 생활'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분 기준에 따라 1~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에 64시간을 배정하여 편성·운영하고,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영역(대주제)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권장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안전한 생활' 내에 재난안전 영역에서 일관되게 재난안전교육이 제공되는 반면, 초등학교 3~6학년의 경우에는 체육, 과학, 실과와 같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안전교육 내용이 분산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 교과에 재난안전 관련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간 재난안전교육의 연계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체육교과의 경우 안전영역에서 신체안전과 안전의식을 핵심개념으로 신체활동과 안전, 수상 활동 안전, 응급처치 등 안전 관련 내용을 다루고, 과학교과의 경우 물질의 변화영역에서는 화학 반응을 핵심 개념으로 화재 시 안전 대책에 대해 다루며, 지구영역에서는 판구조론을 핵심 개념으로 지진 대처 방법을 다루는 등 안전교육의 내용을 다룬다. 또한, 실과교과의 경우 가정생활과 안전영역에서 안전을 핵심 개념으로 생활 안전, 주거 환경과 안전 등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사회교과의 경우에는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영역에서 자연-인간 상호작용을 핵심 개념으로 안전수칙에 대해 제시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안전한 생활'의 단일 영역에 재난안전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달리, 초등학교 3~6학년의 경우 재난안전 교육내용이 과학교과와 사회교과에 분산되어 제시되고 있어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재난안전 교육내용이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중학교 교육과정의 안전교육 역시 여러 관련교과에 내용이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건교과의 경우 안전과 응급처치에서 생활 안전과 응급 처치를 핵심 개념으로 정하여 안전에 대한 교육과정이 명시하고 있고, 기술·가정교과의 경우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서 안전을 핵심 개념으로 생활, 식품, 주거환경 등 안전 관련내

표 2. 2019 개정 누리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비교

학교 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가수준 교육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연령	3~5세	초 1~2학년	초 3~6학년	중 1~3학년	고 1~3학년
구분	신체운동·건강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목	교과목	교과목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생활	체육, 실과, 과학	체육, 기술·가정, 과학, 보건	체육, 기술·가정, 과학, 보건
내용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한다.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관련 교과에 안전 대단원 신설 -모든 교과 활동 과정에서 관련되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관련 교과에 안전 대단원 신설 모든 교과 활동 과정에서 관련되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관련 교과에 안전 대단원 신설 -모든 교과 활동 과정에서 관련되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용을 다루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재난안전교육은 과학교과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재해·재난과 안전 단원에서 재해·재난의 과학적 발생 원인과 대처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안전교육 또한 여러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상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어져 안전과 관련된 전문 교과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체육교과의 경우에는 신체 안전과 안전 관리를 핵심 개념으로 심폐소생술과 안전 의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기술·가정교과의 경우 안전을 핵심 개념으로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재난안전교육은 사회교과에 포함되어 자연-인간 상호작용의 핵심 개념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나타난 재난안전 교육내용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유치원)과 2015 개정 교육과정(초·중·고)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재난안전 교육내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제시하는 재난안전교육 관련정책 및 관련법에 나타난 재난안전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의 재난안전교육 관련정책과 관련법에서 재난안전교육의 기준이 각기 다른 형태와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교육부의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행정안전부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그리고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내용 모두 각각의 독립적인 체계를 가지고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서는 안전교육의 영역을 7개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서는 6개 영역으로, 「아동복지법」에서는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며, 안전교육 영역의 명칭 또한 서로 상이하여 안전교육의 내용이 일관된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통일된 형태와 체계를 분석하기보다는 하나의 정책이나 법에서 안전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16][22]. 그러나 이처럼 안전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법률의 영역이 서로 상이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교육 영역은 모두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난안전교육의 중요성이 최근 들어 강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안전교육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

부의 대표적인 부처인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의 안전교육 정책, 특히 재난안전교육 정책의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분석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범부처간 논의를 통해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향성이다. 서로 다른 안전교육 영역 구분과 중복적인 안전교육 내용에 대해 총괄하여 정책의 흐름과 방향성이 지속적이면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범부처간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201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살펴본 재난안전교육의 내용은 연속적인 체계성을 갖추기보다 학교 급별은 물론 학교 급 내에서도 관련내용이 분산되어 있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경우 유아 대상 재난안전 교육내용은 신체운동·건강영역의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범주에 '재난'이라는 용어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통일된 체계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생 대상 재난안전 교육내용은 초등 1~2학년과 3~6학년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도 1~2학년은 '안전한 생활'이라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재난안전교육의 내용이 명확하게 존재하였으나, 3~4학년과 5~6학년은 교과별로 안전교육의 내용이 분산되어 있었고, 특히 재난안전 교육내용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 관련내용이 과학교과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초등학교 교육과정 안전교육의 내용을 분석한 선행연구는 전체적인 체계를 살펴보기보다는 '안전한 생활'이라는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실과 등의 단일 교과만을 분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9][18-20]. 마지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고등학생 대상 안전교육 내용은 사회, 체육, 과학, 기술·가정 등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분산되어 있었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과학교과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교과에 지진과 같은 재난안전 교육내용이 일부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안전교육 내용을 살펴본 선행연구 역시 분산된 체계를 가지고 가정과 교과를 위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1][21]. 대학입시에 필수적인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대학입시와 관련이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안전, 특히 재난안전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발생 시 피해상황이 대규모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생애발달의 초기단계인 유아기에서 출발하여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체험중심 재난안전교육이 일정한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나타난 재난안전 교육내용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학교교육에서 연속성과 체계성이 확보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 시 재난안전 교육내용의 연속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나타난 재난안전교육 내용과 정부 부처의 재난안전교육 관련정책 및 관련법의 기준을 살펴보고,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갖춘 재난안전교육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나타난 재난안전 교육내용에 대해 국가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재난안전교육의 나아갈 방향성을 확인해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김남은, "가정과 안전교육의 연구 동향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8권 제3호, pp.47-63, 2016.

[2] 공배완, 안황권, "초등학교 안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치안행정논집, 제6권, 제2호, pp.279-298, 2009.

[3] 김신정, 김성희, "초등학생을 위한 교사용 안전교육 지침서 개발," 한국아동간호학회지, 제15권, 제2호, pp.145-154, 2009.

[4] 강민정, 한선아,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유치원 안전교육 표준안에 대한 연구 : IPA기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pp.661-671, 2017.

[5] 성미영, 정현심, 이서경, "영유아 안전 관련 학술연구의 동향 및 내용 분석: 2010년-2017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6호, pp.504-517, 2018.

[6]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5년 사고발생 및 보상통계,* 2017.
[7]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6년 사고발생 및 보상통계,* 2018.
[8]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7년 사고발생 및 보상통계,* 2019.
[9] 이주연, 한혜정, 김정윤, "2015 개정 '안전한 생활'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탐구," 초등교육연구, 제30권, 제2호, pp.107-131, 2017.
[10] 연합뉴스, "포항 5.4 지진으로 전국 '흔들' … 경주지진 이어 역대 2위 위력(종합)," 2017.11.15. http://www.dbpia.co.kr/Society/articleDetail/NODE08759624
[11] 뉴시스, "지진으로 포항지역 학교 피해 '눈덩이'," 2017.11.1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16_0000150395
[12] KBS, "포항 지진 피해액 551억 원... '경주 지진'의 5배," 2017.12.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26744
[13] 교육부,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2014.
[14] 교육부, "유·초·중·고 발달단계별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 -생활, 교통, 재난안전에서 응급처치까지, 체험·실습 중심으로 편성-," 2015.
[15]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2015.
[16] 국민안전처, *2016년 범정부「생애주기별 안전교육」추진계획,* 2016.
[17] 행정안전부, "생애주기별 국민 안전교육 5년 단계별 이행안 나왔다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발표-," 2017.
[18] www.law.go.kr
[19] 이일주, 이현중, 정은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관련 활동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p.619-640, 2017.
[20] 최혜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안전교육 내용 및 교수방법 비교연구 : 한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3-5세 유아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3권, 제4호, pp.1-31, 2016.
[21] 류상희,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실과 가정생활 분야의 평가준거 성취기준 및 평가기준 개발," 제30권, 제2호, pp.111-126, 2017.
[22] 김라경, "안전한 생활과의 교과서로서의 성격과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17권, pp.82-85, 2015.
[23] 윤선화, "안전한 생활 교과서 개발 방향에 대한 토론문,"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제17권, pp.86-90, 2015.
[24] 김남은, 채정현, 조재순, "중학교 가정과 수업을 위한 '안전' 주제 중심 통합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8권, 제1호, pp.19-39, 2016.
[25] 이윤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분석을 통한 실과 안전교육 방향 연구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중심으로-," 실과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pp.75-95, 2017.
[26]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해설서,* 2013.
[27] 교육부, *육아정책연구소, 누리과정 개정을 위한 2차 토론회 '유아교육 혁신방안'에 근거한 누리과정 개정(안),* 2018.
[28] 교육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9 개정 누리과정(안) 공청회, 2019.

저 자 소 개

성 미 영(Mi-Young Sung) 정회원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가정학사)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가정학석사)
- 2003년 8월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생활과학박사)
- 현재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 유아언어교육, 유아재난안전교육

김 신 혜(Shin-Hye Kim) 준회원

- 2018년 2월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문학사)
- 현재 :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영아의사소통발달, 유아안전교육